

# 주거이동이 노인의 사회적, 심리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

- 일산과 분당에 거주하는 노인을 중심으로 -

## The Effects of Residential Relocation on the Social and Psychological Change of the Elderly

서 승 희<sup>1)</sup>

Seo, Seung - Hee

이 경 희<sup>2)</sup>

Rhee, Kyung - Hee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ffects of the elderly Koreans of residential relocation and to find their conditioning variables that mediate some of the negative effects of residential relocation. The research was performed by questionnaires. Subject samples consisted of 448 elderly individuals who have lived for two years or less in one of the two new residential communities in commuting proximity with Seoul: Ilsan or Bundang. Two variables measured for the life of the elderly to residential relocation were the change of the social relationship network and the change of the depression level.

Results indicated that the relocation had a substantial disrupting effect on the social network of the elderly. The level of depression of the subjects after relocation was decreased. It was also found that the effects of the elderly to residential relocation was mainly affected by physical factors of environment and residential satisfaction.

---

###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노인은 생리적, 신체적 기능의 퇴화와 더불어 스스로 자신의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사회적 역할 기능이 약화되어 환경적 변화에 적절히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감소된다. 또한 미래에 대한 계획보다는 과거를 회상하는 일이 많아지므로 오랫동안 살아왔던 집이나 이웃, 친구들, 그리고 과거의 추억이 담겨있는 친숙한 물

건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따라서 많은 추억이 담겨있고 정들었던 환경을 떠나 새로운 장소로 이동한다는 것은 노인에게 사회적 관계의 단절과 심리적 우울감의 증가와 같은 심각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서구의 경우 주거이동에 관한 초기의 연구들은 주거이동이 노인에게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심을 두었다. 그 결과 몇몇 연구들(Aldrich & Mendkoff, 1963; Marlow, 1972)은 주거이동이 노인에게 사망률 증가, 의기소침, 우울, 사회적 관계의 감소와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고한 반면, 다른 연

1) 성신여자대학교, 카톨릭대학교 강사

2) 중앙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

구들(Carp, 1977; Watson, 1980)은 부정적인 결과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상반되는 연구결과로 인하여 주거이동을 노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건으로 혹은 생활의 신선한 자극으로 인식하도록 만드는 개인의 조건 변수들을 확인하려는 연구들(Schulz & Brenner, 1977; Watson, 1980; Wells & Macdonald, 1981; Lareau, 1982; Bailey, 1987)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노년기의 주거이동이 젊은 사람들의 이동과는 다른 성격을 가진다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노인을 대상으로 한 주거이동의 연구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주거이동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노인들에게 나타나는 사회적 관계와 심리적인 우울감의 변화 정도를 파악하고,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밝혀서 노인들이 주거이동 후 새로운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는데 있다. 이러한 노인의 주거이동에 관한 연구는 노인들의 장기적인 주거생활 계획에 기본적인 지침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정부의 노인 주택 정책과 노인 주택단지 개발, 그리고 노인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적절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II. 이론적인 배경

### 1. 주거이동이 노인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

#### 1) 사회적 관계의 변화

물리적인 환경을 끊임없이 변화시키면 사람들은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하거나 유지시킬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최근 교통 통신 기술의 발달로 주거이동이 반드시 사회적 관계의 단절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므로 앞으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Wells 와 Macdonald(1981)는 주거이동이 지금까지 맺어온 사회적 관계를 위협하는 것으로 상당한 정도의 사회적 관계를 파괴시킨다고 하였으며, Pastalon 과 Boureston (1974)은 사회적 관계의 단절이 주거이동 후 새로운 환경에 대한 노인의 부적응과 사망을 증가의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 (Regnier & Pynoos,

1987).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친숙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노인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반면 Janowitz(1967), Webber(1970), 그리고 Fried(1984)는 교통, 통신기술의 발달로 주거이동이 반드시 사회적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이경희외 3인 공역, 1994).

#### 2) 심리적인 변화

부적합한 환경으로의 주거이동으로 인하여 노인이 새로운 주거환경에 잘 적응할 수 없는 경우 불안, 짜증, 분노 등의 감정상태를 야기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방치되었을 경우 자아존중감이 상실되어 도피증, 우울증, 정신분열증상을 일으킬 수 있고 가족 간의 친밀도가 저하되며 사회 참여가 낮아지게 된다(이경희외 3인 공역, 1994). 반면 만족스러운 주거환경으로의 이동은 거주자의 복지감을 증진시키며, 새로운 주거환경에 대한 적응력도 향상될 수 있다.

Watson(1980), Wells와 Macdonald(1981)는 주거이동에 따른 노인의 심리적인 우울증상과 부정적인 자기 이미지를 조사한 결과 주거이동 후의 부정적인 결과는 모든 노인에게 발생되는 것은 아니며, 노인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오히려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주거이동 후 노인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찾아 내어 조절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였다. 이와 같이 주거이동은 노인에게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심리적 상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 2. 주거이동 후 노인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거이동 후 노인들에게 나타나는 결과들은 노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조건에 따라 다양하다. 이러한 개인적인 조건들을 알아보기 위하여 노인의 개인적 특성, 사회적 환경, 물리적 환경, 주거이동 유형의 4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 1) 개인적 특성

노인의 건강상태는 주거이동 후 노인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Baily (1987)는 이동 시기의 좋은 건강은 이동 후의 만족감과 유

의미한 관계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경제적인 상태와 교육수준은 노인의 사회경제적인 지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주거이동 후 노인의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Carp (1972)는 노인의 사회경제적인 지위 수준이 높을수록 이동으로 인한 충격이 적어지고 이동 후 적응력이 더욱 커진다고 보고하였다(Leareau, 1982).

개인의 내외 통제성격 특성 역시 주거이동 후 노인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Schulz와 Brenner(1977)는 노인 개인이 갖고 있는 내외 통제성격 특성, 즉 환경을 조절할 수 있는 성격인지, 아닌지에 따라 주거이동 후의 적응에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 2) 사회적 환경

가족 및 친척, 친구와의 친밀한 관계는 주거이동 후 노인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다. Watson(1980)은 노인이 주거이동 후 자녀 및 다른 가족성원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때, 높은 수준의 자기 이미지와 생활만족도, 그리고 낮은 수준의 심리적인 불안감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으며, Lareau(1982) 역시 가족 및 친구와의 관계가 주거이동으로 인한 노인의 충격을 중재하고 적응력을 높인다고 설명하고 있다.

### 3) 물리적인 환경

주택과 주변환경을 포함하는 물리적인 환경은 주거이동 후 노인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이 될 수 있다. Woodward, Gingles와 Woodward(1974)는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은 사회적인 고립감을 완화시켜주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으며, Newman(1986)은 주거 외부의 서비스 시설 중에서 교통시설, 오락시설, 구매시설, 의료시설 등의 인접성과 질적 수준은 노인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만약 이러한 서비스 시설이 주거지역에 가까이 있지 않으면, 노인의 주거만족도는 낮아질 것이고 하였다. 또한 Struyk과 Soldo(1980)는 노인이 일상생활에서 많은 주민들과 자주 접촉할 수 있는 주택지역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며, 그들은 일반적으로 많은 동년배의 친구, 친지 또는 친척들과 어울릴 수 있는 곳에서 활발한 교류를 맺으며 생활했을 때, 더욱 생의 보람을 느낄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서승희, 1988).

이러한 연구들은 노인의 새로운 환경에 대한

만족감이 주거이동으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를 완화시켜주는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여 준다.

### 4) 주거이동의 자발성

주거이동의 자발성은 주거이동 후 노인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다. Schulz와 Brenner(1977), Beaver(1979) 등은 노인의 주거이동 유형을 자발적인 이동과 비자발적인 이동의 두가지로 나누었으며, 자발적인 주거이동이 비자발적인 이동의 경우보다 부정적인 효과가 적고, 새로운 생활 환경에서의 적응력도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연구목적과 관련문헌의 고찰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구성하였다

〈연구문제 1〉 주거이동 후 노인의 사회적 관계 및 심리적인 우울감은 어느정도 변화하였는가?

〈연구문제 2〉 주거이동 후 노인의 사회적 관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3〉 주거이동 후 노인의 심리적 우울감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무엇인가?

이러한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연구모형과 관련변인의 구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그림1에 나타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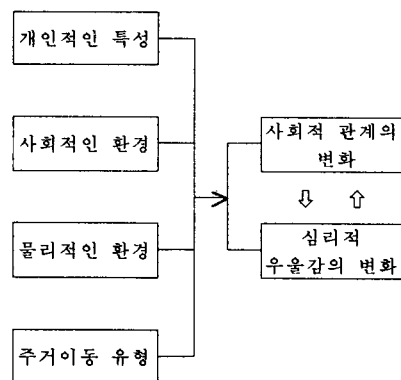


그림 1. 주거이동 이 노인의 사회적, 심리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개념적 연구모형

## 2. 조사도구

### 1) 개인적 특성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개인적인 특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노인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경제상태, 교육수준, 직업유무, 교통수단(자가용 이용 가능과 대중 교통수단 이용), 동거형태, 결혼상태, 내외 통제성격 특성을 조사하였다.

### 2) 사회적인 환경

노인의 사회적인 지원망을 알아보기 위하여 배우자 및 자녀와의 주관적인 친밀도와 자녀와의 거주거리, 접촉빈도, 자녀로부터 받는 경제적, 신체적 지원의 정도를 알아보았다. 또한 가족 이외의 다른 사람들(친척 및 친구들) 중 신체적, 정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묻는 8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 3) 물리적인 환경

주거환경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거이동 전의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으로 거주기간과 주택유형, 주택만족, 거주지역을 질문하였으며, 현재의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으로 거주지역과 거주기간, 주택의 소유권과 구조적인 특성, 그리고 이웃 환경 특성, 현재 주택에 관한 만족의 정도를 질문하였다.

### 4) 주거이동 유형

주거이동 유형은 노인의 이동이 자발적인 것인가, 비자발적인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3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노인들의 주거이동 동기를 분류하기 위하여 노인들이 주거이동을 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질문하였다.

### 5) 사회적 관계의 변화

주거이동 후 노인의 사회적 관계가 변화된 정도를 알아보는 척도로서 홍순혜(1984), 김정순(1989), 지연경(1990) 등의 연구에서 사용된 활동 수준 척도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사회적인 관계의 변화에 관한 문항은 총 5문항으로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이 사하기 전과 현재의 상태를 비교하여 볼 때 현재의 사회적 관계가 더 빈번한가에 대하여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에 2점, 이 사하기 전과 현재의 상태가 같은

경우 3점, '약간 그렇다'에 4점, '그렇다'에 5점을 주었다. 따라서 평균 점수가 3점인 경우 이 사하기 전과 비교하였을 때 변화가 없는 것이며, 그 미만인 경우 사회적 관계가 감소된 것이고, 3점이 초과된 경우 사회적 관계가 더욱 확장된 것이다(Cronbach's alpha = .70).

### 6) 심리적인 우울감의 변화

Gurel, Linn과 Linn 이 1972년 제작한 PAMIE ( Physical and mental impairment of function evaluation in the aged) 척도 중에서 심리적인 불안감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우울과 근심의 척도 8문항과 Gallo, Anthony와 Muthen(1994)이 사용한 우울의 척도 중 본 연구에 적합한 문항을 선택하여 총 15개의 문항을 작성하였다. 척도의 내용은 근심, 우울의 정도, 식욕 감퇴, 수면 장애, 피로감, 불안감에 대한 것으로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사회적인 관계 변화의 경우와 같다(Cronbach's alpha = .93).

## 3. 조사방법 및 절차

조사대상은 신도시인 일산과 분당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이사한지 2년 이내인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임의 표집하였다. 예비조사는 1995년 7월 27일에서 8월 16일까지 2차례에 걸쳐 시행되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조사도구의 문제점을 보완하였다. 본조사는 1995년 8월 30일부터 9월 6일에 걸쳐서 실시되었으며, 자료수집은 본 연구자에 의해 교육받은 조사요원 40명이 직접 면접하여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지는 총 500부가 배부 되었으며, 448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을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일원변량분석, 다변인회귀분석을 사용하였으며, 통계처리는 SPSS PC +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1에 나타난 바와 같다.

조사대상자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응답자가 속한 가계의 81.4%가 100만원 이상의

월수입을 갖고 있으며, 노인의 주관적 경제적 형편에 대한 질문에 충분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76.3%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조사대상 노인의 전체적인 경제적 수준이 비교적 높으며 중산층에 속하는 노인들이 대다수라는 사실을 시사하여 준다. 또한 동거형태를 보면 응답자의 96.2%가 자녀와 동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의 평수도 대부분 넓어서 주거공간을 충분히 사용하는 경향이며, 전체 응답자의 88.6%가 자가소유의 집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주택의 형태를 보면 조사대상의 59.6%가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 등에서 살다가 신도시의 아파트로 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N=448)

사회인구학적 변인		N(%)	물리적 환경 변인		N(%)
연 령	60 - 64세	84(18.8)	거주지역	일산	267(59.6)
	65 - 69세	88(19.6)		분당	181(40.4)
	70 - 74세	107(23.9)	소유권	자가소유	397(88.6)
	75 - 79세	100(22.4)		임차	51(11.4)
	80세이상	69(15.4)	거주기간	1 - 6 개월	99(22.1)
성 별	남 자	209(46.7)		7 - 12 개월	135(30.1)
	여 자	239(53.3)		13 - 18 개월	102(22.8)
현재의 건강상태	건강	199(44.4)		19 - 24 개월	107(23.9)
	보통	92(20.6)	평 수	25명 이하	76(17.0)
건강 못함	157(35.0)	26 - 35명		158(35.2)	
가계의 월수입	99만원이하	79(17.9)		36 - 45명	94(21.0)
	100-199만원	236(52.7)		46명 이상	120(26.8)
	200-299만원	99(22.4)	이전 주택의 형태	단독주택	206(46.0)
300만원이상	28(6.3)	아파트		181(40.4)	
경제적 형편 (주관적)	매우 충분	84(18.8)	동거형태	연립 및 기타	61(13.6)
	충분(보통)	257(57.5)		혼자산다	16( 3.6)
결혼상태	부족 하다	106(23.7)	배우자	91(20.3)	
	배우자 사 별	234(52.3)	아들부부	271(60.5)	
			결혼한 딸(부부)	35( 7.8)	
			미혼자녀	34( 7.6)	

## IV. 결과 및 해석

### 1. 주거이동 후 노인의 생활

#### 1) 사회적, 심리적 변화의 정도

〈연구문제 1〉인 주거이동 후 노인의 생활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회적 관계 및 심리적인 우울감의 변화의 정도를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여

살펴보았다.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거이동 후 노인의 사회적 관계의 변화는 5점 척도를 기준으로 2.63으로 나타나 이사하기 전과 비교하여 볼 때, 전체적으로 감소되었으며, 심리적인 우울감의 변화는 3.11로 이사하기 전보다 노인의 심리적인 상태가 안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세가지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다. 첫째, 환경변화의 양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들은 주거이동으로 단지 주거환경과 이웃

표2. 주거이동 후 노인의 사회적, 심리적 변화의 정도

측정치 \ 변 인	사회적 관계의 변화	심리적 우울감의 변화
평 균	2.63	3.11
표준편차	0.84	0.61

\* 사회적 관계 및 심리적 우울감의 변화는 3점인 경우 이사전과 변화가 없는 것이고, 3점 미만인 경우 이사 후 나빠진 것이며, 3점 초과인 경우 이사 후 더 좋아진 것이다. .

환경만 변화될 뿐, 함께 거주하는 가족원 모두가 변화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이동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지역적으로 분당과 일산은 새로 계획된 신도시로 아파트의 전체적인 질이 비교적 높고 쾌적하다. 따라서 연구대상 노인들이 새로운 주거환경에 대부분 만족하는 경향이므로 심리적인 우울감도 덜 느낀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조사대상 노인들의 경제적 상태가 중상층에 속하는 경우가 대다수로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기 때문에 주거이동 후 심리적인 우울감이 감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 2. 주거이동 후 노인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1) 사회적 관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연구문제 2)를 알아보기 위하여 주거이동 후 노인의 사회적 관계의 변화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관련 독립변인과 심리적인 우울감 변화를 설명력이 가장 높은 순서로 단계별로 투입하여 다

변인 회귀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7개의 변수가 사회적 관계의 변화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선정되었다.

사회적인 관계의 변화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주거이동으로 인한 심리적인 우울감의 변화로 사회적 관계의 변화에 대해 14.6%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이 주거이동으로 인한 심리적인 우울감을 많이 느낄수록 사회적 관계 역시 감소하게 된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그 다음으로 영향력이 큰 변수는 이웃에 거주하는 동년배 노인의 밀도에 관한 문항으로 3.8%의 설명력을 갖는다. 즉 이웃에 비슷한 연배의 노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주거이동으로 인한 사회적 관계의 감소 정도는 적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전에 살았던 주택에 대한 만족도는 노인의 사회적인 관계 변화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전에 살던 주택에 대한 만족이나 애착이 클수록 주거이동으로 인한 사회적 관계의 단절이 많아지며, 이전 주택에 대하여 불만족했던 경우 주거이동으로

표3. 노인의 사회적 관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제변인들 (N=448)

종속변인 독립변인	사회적인 관계의 변화			
	B	R <sup>2</sup>	$\beta$	T
심리적 우울감 변화	0.484	0.146	0.350	8.21***
이웃의 노인 밀도	0.166	0.184	0.146	3.31***
구매시설의 편리성	0.165	0.209	0.137	3.21**
이전주택에 대한 만족	-0.092	0.222	-0.122	-2.94**
노인시설의 근접성	0.167	0.232	0.121	2.76**
자녀와의 접촉빈도	-0.098	0.243	-0.097	-2.26*
친척, 친구와의 근접성	0.090	0.252	0.101	2.41*
Constant	1.733			6.87***
F값	21.037***			

\* p<.05    \*\* p<.01    \*\*\* p<.001

설명력이 강한 변인들로부터 약한 변인들로 내려가는 단계(stepwise)분석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R<sup>2</sup>의 값은 누적적으로 계산된 것이다.

인한 사회적 관계의 감소가 비교적 적었다. 자녀와의 접촉빈도 역시 사회적 관계의 변화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와 매일 접촉하는 노인들은 주거이동으로 인한 사회적 관계의 감소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와 매일 접촉하는 노인들은 자녀와 빈번한 교류를 갖기 때문에, 주거이동 후에도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거나 가족 이외의 사람이나 단체와 맺어온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덜 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 밖에 구매시설의 편리성, 노인을 위한 시설의 편리성, 친척, 친구와의 근접성이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상 총 7개의 독립변인이 주거이동으로 인한 노인의 사회적 관계 변화에 대해 갖는 설명력은 25.2% 정도이다. 이 중 주거이동으로 인한 노인의 심리적인 우울감의 변화는 전체 설명력의 3/5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주거이동으로 인한 노인의 심리적 우울감의 변화 정도에 따라 사회적인 관계의 변화가 어느 정도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물리적인 환경 변인(이웃에 거주하는 동년배 노인의 밀도, 구매시설의 편리성, 이전 주택에 대한 만족, 노인을 위한 시설의 근접성, 친척, 친구와의 근접성)도 사회적 관계의 변화를 9.5% 정도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들이었다.

## 2) 심리적 우울감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연구문제 3>을 알아보기 위하여 주거이동 후 노인의 심리적인 우울감 변화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주거이동 후 사회적인 관계의 변화와 관련 변인들을 독립변수로 하여, 설명력이 높은 순서로 단계별로 투입하여 다변인 회귀분석을 한 결과 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8개의 독립변수가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인 우울감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현재 주택에 대한 만족으로 18.0% 정도의 설명력을 갖는다.

표4. 심리적 우울감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인들 (N=448)

종속변인	심리적 우울감 변화			
	B	R <sup>2</sup>	$\beta$	T
독립변인				
현재주택에 대한 만족	0.195	0.180	0.316	7.67***
사회적 관계의 변화	0.203	0.268	0.281	6.83***
교통수단	0.186	0.291	0.169	4.24***
가족이외의 정서적지원	0.141	0.308	0.114	2.81**
구매시설의 편리성	0.119	0.324	0.136	3.47***
결혼상태	0.156	0.333	0.127	3.01**
이전주택에 대한 만족	-0.504	0.342	-0.092	-2.31*
자녀와의 접촉빈도	0.061	0.349	0.095	2.30*
Constant	3.492			19.50***
F 값	29.34***			

\* p<.05 \*\* p<.01 \*\*\*p<.001

이러한 결과는 새로운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감이 주거이동이 노인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키는 중요한 변인임을 입증하여 주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사회적 관계의 변화로 8.8%정도의 설명력을 갖는다. 이는 주거이동으로 인한 사회적 관계의 감소가 적은 노인이 심리적 우울감도 덜 느끼며,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두가지 변인의 설명력을 합하면 26.8%로 8개의 변인들이 갖는 전체 설명력 중 3/4 정도를 차지한다. 그 밖에 교통수단과 결혼상태, 가족 이외의 사람으로부터 받는 정서적 지원의 유무, 자녀와의 접촉빈도, 그리고 구매시설의 편리성과 이전 주택에 대한 만족의 정도는 주거이동으로 인한 노인의 심리적인 우울감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이상 총 8개의 독립변인이 주거이동으로 인한 노인의 심리적인 우울감 변화에 대해 갖는 설명력은 34.9% 정도이다.

##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주거이동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노인들에게 나타나는 사회적 관계와 심리적인 우울감의 변화를 파악하고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밝혀서 노인들이 주거이동 후 새로운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은 몇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에서 신도시로 이동한 노인들은 주거이동 후 사회적 관계는 전체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심리적인 상태는 오히려 안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신도시 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조사대상 노인의 경제적 수준이 비교적 높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주거이동에 따른 사회적 관계의 변화는 심리적 우울감의 변화와 새로운 주거지의 이웃 환경, 특히 이웃에 비슷한 연배의 노인이 거주하는 정도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들이 주거이동 후 새로운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 이웃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사회적 지원과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주거이동으로 인한 노인의 우울감 변화는 새로운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감과 사회적 관계의 변화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노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정이 주거이동을 할 경우, 혹은 노인을 위한 무료, 유료 양로시설이나 주택단지를 개발할 경우, 객관적인 양질의 물리적 환경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볼 때 새로운 지역의 물리적인 환경에 대한 노인의 만족감은 주거이동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이루어질 연구들을 위하여 몇가지 사항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도시 이외의 다른지역으로 이동한 노인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저소득층 노인, 건강상태가 아주 나쁜 노인, 시설주거에 생활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주거이동의 연구와 이동거리 및 환경 변화의 양에 따른 좀더 다양한 형태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주거이동을 실제로 원하지 않는 노인들에게 이동을 하지 않고 그들의 노화과정에 따른 능력변화에 맞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거의 시설 설비를 변화시키고, 이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서비스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 김태현, 노년학, 교문사, 1994.
- 서승희, 노인의 주거환경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1988.
- 서승희, 이경희, 노인의 주거이동에 관한 이론적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1994 41-49.
- 한국문화예술진흥원문화발전연구소, 한국의 주거 문화 모델 개발보급 방안연구, 1991
- 이경희, 김대년, 홍형욱, 서승희 공역, 주거와 환경, 문운당, 1994.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제8편 고령자 편, 1993
- 지연경, 내외통제성 및 은퇴로 인한 스트레스 지각과 생활만족도-은퇴한 남자노인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1.
- 홍순혜, 활동이론에 따른 한국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84.
- Baily, A. Satisfaction with housing relocation as expressed by elderly person, *Housing and Society*, 14 (2), 1987, 161-166.
- Beaver, M.L., The decision-making process and relationship to relocation adjustment in old people, *The Gerontologist*, 19, 1979, 567-574.
- George, L.K., *Role transitions in later life*,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1980.
- Kim Kyung-Hye, *The impact of community-based serviced on the residential choice older americans*, Cornell University, 1993.
- Lareau, L.S., Relocation of the elderly : A social context for stress, *Housing and Society*, 9(1), 3-11, 1982.
- Regnier, V. & Pynoos, J., *Housing the aged*, New York, Amsterdam and London Elsevier, 1987.
- Schulz, R. & Brenner, G., Relocation of the age : A review and theoretical analysis, *Journal of Gerontology*, 32(3), 1977, 323-333.
- Schooler, K., Effect of environment on morale, *The Gerontologist*, 10, 194-197, 1980.
- Watson, W.H., *Stress and old age*, New Brunswick and London : Transaction Book, 1980.
- Well, L. & Macdonald, G., Interpersonal network and postrelocation adjustment of institutionalized elderly, *The Gerontologist*, 21(2), 177-183, 1981.
- Woodward, H., Gingles R. & Woodward J.C., Loneliness and the elderly as related to housing, *The Gerontologist*, 14, 1984, 349-351.